



금융위원회

## 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7.(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3.(금) 17:0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 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 박성빈 (02-2100-2864)

##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

## 주요 내용

□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, 금리인하,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

○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.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

□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,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

## 1

##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

□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(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)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, 상환유예,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※ '08년 금융위기사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**Fast-Track 프로그램 (FTP)** 도입 →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여 '17년 **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**으로 개편

## &lt;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&gt;

- [지원대상] 정상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로,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
  - 은행별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, **A등급**(정상기업) / **B등급**(일시적 유동성 위기업) / **C등급**(부실징후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) / **D등급**(부실징후 있으며 경영정상화 어려운 기업)으로 분류
- [지원절차]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→ 중소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요청 → 채권은행 '자율협의회' 소집 → 공동 지원방안 의결 →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

□ 이를 통해 최근 5년간(2017년~2021년) 총 594개 중소기업이 4.7조원의 만기연장, 상환유예,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습니다.

-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, 필요시 금리를 1~2%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#### < 참고 : 신속금융지원 성공사례 >

- A사는 블랙박스 등 자동차 내장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, 관계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경영이 어려워져,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를 적용
  - 경영활동을 지속하며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외부투자 230억원을 유치하였고, 유동성 확보와 더불어 미래차 전장부품 등 신사업 진출로 경영정상화에 성공
- B사는 의류제조 중소기업으로, '19년도 중국진출 실패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 →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를 지원받고, 사업장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
  - 금융지원 및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에 집중하며 차입금 상환에 성공
  - 재무구조 개선(부채비율 606%→254%) 및 신용등급 상향(B+→A)을 통해 1년 만에 프로그램 졸업 및 경영정상화 달성

## 2

###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

□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년 6월말 종료 예정으로,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금리, 환율,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\*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바,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\* [中企대출금리] ('20말) 2.9% → ('22.3.) 3.6% / [환율] ('20말) 1,088원 → ('22.5.31.) 1,248원  
[원자재 가격지수<sup>Bloomberg</sup>] ('20말) 78.0 → ('22.5.31.) 131.3

-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하여,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□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,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,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 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 박성빈 (02-2100-2864)
<공동>	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 박충현 (02-3145-8370)
		담당자	팀 장 임연하 (02-3145-8382)